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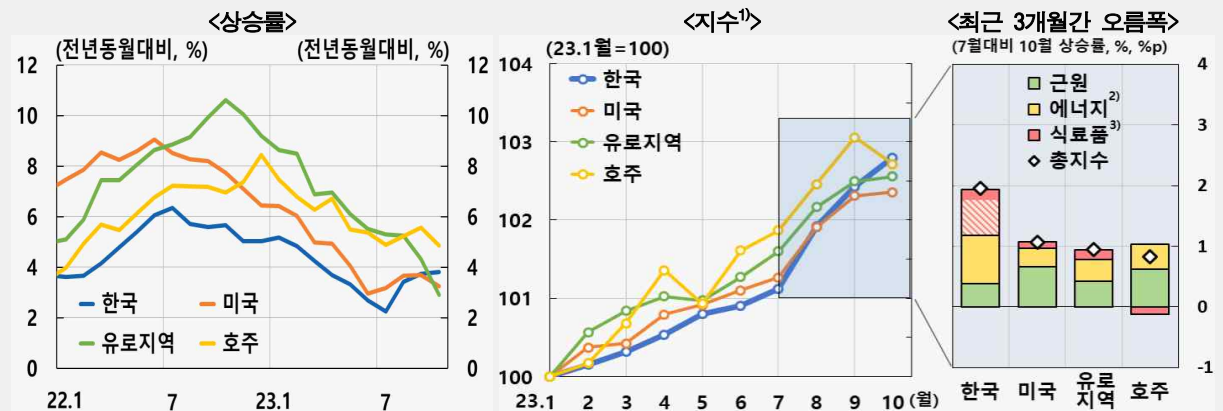
BOX 1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중반 정점(22.6월 9.1%, 22.7월 6.3%) 이후 일년 간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오다가 올해 중반부터는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차례로 반등하였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0.7%p 반등(6월 3.0% → 9월 3.7%)한 후 10월(3.2%)에는 다시 낮아졌다. 정점이 미국보다 한 달 늦었던 우리나라는 8월부터 3개월간 1.5%p(7월 2.3% → 10월 3.8%) 높아졌는데 11월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정점(22.10월)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면서 최근까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⁵⁹⁾.

그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둔화되어 왔으나 주요국과 달리 반등 시점에 농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⁶⁰⁾ 10월 상승률은 미국과 유로지역에 비해 높아졌다. 10월 현재 최근 3개월간의 상승률(모멘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로 미국(1.1%)과 유로지역(0.9%)을 상당폭 웃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가격⁶¹⁾이 큰 폭 상승하면서 최근 3개월간 으뜸폭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였다⁶²⁾.

우리나라 CPI 상승률은 최근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며 10월 중 주요국을 상회

[그림 1] 주요국 소비자물가



주: 1) 미국·유로지역(ECB)은 계절조정 기준 2) 미국·유로지역은 energy, 호주는 automotive fuel
3) 미국·유로지역은 food, 호주는 fruit and vegetables. 한국의 빚금 부분은 농산물
자료: 통계청, BLS, Eurostat, ABS(이하 각국 통계청), 한국은행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3%대 초반)도 최근 다소 더딘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10월 현재 4%대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59) 호주의 경우 지난해 연말연후 여행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에 정점(8.4%)을 기록한 후, 올해 7월(4.9%)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이후 유가 변동 등으로 9월 중 5.6%까지 반등하였다가 10월에는 4.9%로 다시 낮아졌다.
- 60)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채소·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폭우·폭염 등으로 8월 중 예년보다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추석 이후에도 생산 감소 등으로 예년과 달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61)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물은 CPI내 가중치가 높을 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2000년 이후 월별 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의 표준편차도 한국이 4.9로 미국(3.2), 유로지역(3.0)에 비해 크다.
- 62)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물가의 3개월 상승률은 여타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근원품목의 기여도는 0.38%p로 미국(0.66%p), 유로지역(0.42%p), 호주(0.63%p)보다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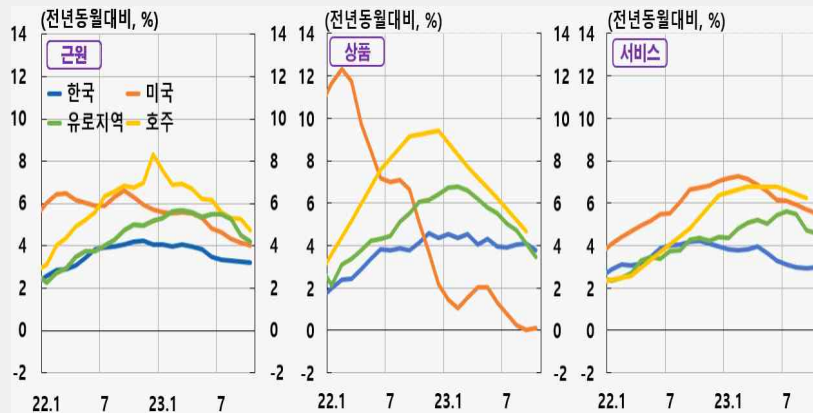
주요국 근원물가 상승률의 더딘 둔화 흐름에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충격에 따른 영향이 상당폭 해소되면서 상품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약화되었으나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으로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미약한 성장세에도 공급충격의 이차효과 지속⁶³⁾,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서비스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근원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국내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으로 상품가격 상승률의 둔화 흐름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압력이 누증되었던 데다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들어 유가·환율·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최근 주류,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⁶⁴⁾. 이 외에도 팬데믹 이후 비용상승 충격을 완충 smoothing-out 하였던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지원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⁶⁵⁾.

근원물가의 둔화 흐름은 국별로 상품·서비스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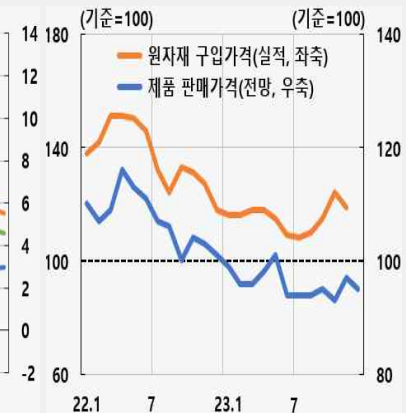
제품가격 인상 계획이 있는 기업이 다소 증가

[그림 2] 주요국 근원물가¹⁾²⁾



주: 1) 호주는 fruit and vegetables, automotive fuel 제외 기준
 2) 호주 근원상품과 근원서비스는 분기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한국은행, Haver

[그림 3] 내수기업 BSI¹⁾



주: 1)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미만인 제조기업의 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은행

63) Bailey BOE 총재는 영국의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률이 높은 데다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식료품(food) 인플레이션이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면서 이차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1.20일).
 64) 일각에서는 물건의 양이나 품질을 낮춰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이 나타나고 있다.
 65) 전기·가스요금은 주요국에 비해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소비자물가 급등을 완화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인상 시기가 이연되면서 파급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행 유류세 인하폭(휘발유 25%, 경유 37%)이 축소될 경우에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